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 -1367) 로 알려주세요.

교황, 신자 대면 수요 일반알현

프란치스코 교황이 6개월 만에 공개 행사에서 신자들과 직접 대면했다.

2일 '연합뉴스' 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신자들의 환영 속에 바티칸 사도궁 옆 야외 공간에서 수요 일반알현을 주례했다. 수요 일반알현에 신자들의 참석이 허용된 것은 6개월 만이다.

교황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3월 초부터 이를 온라인 중계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신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대부분 마스크를 썼고, 좌석은 사회적 거리 지침에 따라 띄엄띄엄 배치됐다. 교황은 만면에 환한 미소를 띤 채 반갑게 신자들을 맞았다.

이 행사는 동절기를 제외하고 통상 성베드로광장에서 수만 명의 신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된다. 이번의 일반알현 규모 자체는 그에 훨씬 못 미치지만 교황과 일반 신자가 다시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맞댄 것 자체의 의미가 크다.

교황은 행사 시작과 함께 박수로 환영하는 신자들에게 "여러 달이 지난 후 스크린이 아닌, 직접 얼굴을 마주하는 만남을 재개하게 됐다." 며 "이는 아름다운 일" 이라고 반겼다.

교황은 연단으로 향하는 와중에 잠깐잠깐 멈춰서서 1m 이상의 안전거리를 두고 신자들과 담소를 나누는가 하면 평소처럼 아이들에게 축복을 내리는 모습을 보였다.

훈화에서는 베이루트 폭발 참사 이후 정치·사회 불안에 직면한 레바논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했다.

교황은 "레바논을 외로이 내버려 둘 수 없다. 폭발 참사 이후 한 달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친애하는 레바논 국민과 함께 있다." 고 강조했다.

훈화 말미에는 현장에 참석한 레바논 출신 사제로부터 레바논 국기를 넘겨받아 입을 맞추며 애정을 표하기도 했다.

교황은 4일을 레바논을 위한 기도와 금식의 날로 선포하는 한편 당일 교황청 이인자로 꼽히는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을 베이루트에 파견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대한 마음의 힘을 활용하라

우리의 마음자리는 불가능을 모르는 무한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기필코 이겨내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극복하지 못한다 함은 포기와 좌절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면한 어려움을 전화위복으로 바꾸어가는, 긍정적이요 희망적인 마음가짐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까닭은 덧없이 흘러가며 살고, 허망하고 불행하게 살고자 함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참된 '나' 를 찾고 멋있게 살고자 함입니다. 한없이 넓고 깊고 완전한 시방의 마음세계. 나도 그 마음을 주인삼고 벗삼고 스승삼아, 마침내는 내 마음의 보배창고를 열어 무궁무진한 보물들을 쓰며 행복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보배창고를 발견하고 또 열 수 있는 것인가? 이 답 또한 한 마음, 한 생각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옛날, 혼자서 어렵게 유복자를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아들의 장원급제를 빌면서 열심히 기도하였는데, 며칠 후 병의 목 부분이 부러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으로 인해 불안을 느낀 어머니는 해몽가의 집을 찾았으나 해몽가는 외출중이었습니다. 그냥 돌아갈까 기다릴까 망설이고 있을 때, 혼자서 집을 지키고 있던 해몽가의 딸이 말했습니다.

"저도 해몽을 할 줄 알아요. 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아들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났는데, 꿈에 병의 목이 부러지면서 두 동강 나는 꿈을 꾸었다네. 그게 무슨 꿈인가?"

"아드님이 말을 타고 한양으로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지는 꿈입니다."

기운이 쑥 빠진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진짜 해몽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와 함께 따님의 해몽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해몽가가 말했습니다.

"빨리 되돌아가서 해몽한 딸아이의 뺨을 좌우로 세 대씩 때리고, '꿈을 내 놓으라' 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꿈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해몽해 드리지요."

그 말대로 하여 꿈을 되찾은 도령의 어머니는 해몽가에게 처음부터 다시 물었습니다.

"병 목이 부러져 두 동강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입니까?"

"병 목이 있으면 한손으로 병을 쥐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의 목이 부러져 없어지면 한손으로 쥐고 다니던 병을 두 손으로 받치고 다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아드님이 모두가 떠받드는 사람이 된다는 암시입니다. 틀림없이 아드님은 장원급제를 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어머니는 더욱 열심히 '관세음보살' 을 부르며 기도하였고, 아들은 장원급제하였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해몽가 딸의 해몽에 집착하여 어둡고 비관적이고 불안한 에너지를 아들에게 보내었다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해몽가의 새로운 꿈 풀이를 믿고, 밝고 희망찬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밝고 고요한 에너지가 염력(念力)이 되어 아들을 보호하고, 좋은 결실을 맺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의 마음에서 어떠한 기운을 뿜어내는가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생각이 운명을 바꿉니다. 마음을 어떻게 개척하느냐에 따라 운명의 변화도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물질의 풍요와 감각적인 즐거움을 따라 흘러가는 한 생각이 아니라, 흐름을 거슬러 한 송이 연꽃을 피우고 마음의 고향을 향하고자 하는 한 생각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것이 나를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요, 이웃과 나를 함께 살리는 길이며, 이 지구를 건강한 생명체로 순화시키는 길입니다.

우리 인간은 작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가 일으키는 한 생각은 나만이 아니라 가족, 이웃, 지구, 우주 자연을 변화시키는 역동성과 창조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바른 생각을 일으키고 바른 숨결로 삶을 살아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입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조화입니다. 나도 가족도 이웃도 사회도 내 마음 따라 바뀝니다. 산천초목과 지구의 삼라만상 모든 것이 내 마음과 함께 합니다.

-혜국 스님-